

SAMC | LAW REVISION**1. 국회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2018년부터 무엇이 바뀌나?**

KC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의류나 잡화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전안법'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개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한시름을 뉘었다. 국회는 지난 2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에만 적용되던 KC(국가통합인증규격)인증의 취득 의무를 의류나 잡화 등의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기준준수를 신설했던 생활용품을 4단계로 확대하며 해당 생활용품은 KC 인증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Read More](#)**2. 라면 등 161개 공산품, 원산지 증명 '간이발급대상물품' 지정**

공산품에도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 간이발급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의 전자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간이발급대상물품'에는 조제 김, 자동차 휘발유, 라면 등이 포함된다.

[Read More](#)**3.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서' 명칭, '비가공 증명서'로 바꾼다**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서'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가공증명서'로 변경한다. 또 환적화물의 포괄보수작업 승인신청 및 보수작업 완료 일괄보고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보수작업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명칭 변경과 아울러 원상태 반출뿐만 아니라 단순작업을 했을 때도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으며, 증명서 신청 시기도 '환적화물 적재 전'으로 명확히 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기간...이후 적발 시 벌금 1억

환경부와 법무부가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11월 22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6개월 간 자진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학법과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위반 적발 시,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ad More](#)

2. CO-PASS 개선 사업 마칩표, 내년 1월 5일부터 정식 서비스

중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한해 조회할 수 있었던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이 앞으로는 인도와 ASEAN 국가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 FTA 포털 시스템으로만 조회가 가능했던 원산지 증명서 교환 현황 및 통관 여부도 모바일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1월 22일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의 콘텐츠와 각종 기능을 추가하는 ‘CO-PASS 개선 사업’에 마칩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 1월 5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Read More](#)

3. 中, 내년 수출입 관세 조정방안 발표

중국정부가 내년도 수출입 관세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중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대거 포함돼 수출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은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12월 15일 중국 재정부가 ‘2018년 중국 수출입 관세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조정방안에 따라 내년도 ‘중국 세척 중 세목’은 올해보다 2개 늘어난 8,549개로 확정됐다고 12월 21일 소개했다. 잠정수입관세 적용 품목은 첨단설비, 의료기기, 환경오염 관련 제품과 중국 소비자가 즐겨 찾는 소비품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품목별 인증수출자, 타협정 추가 시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른 협정을 추가해 인증받으려는 경우 앞서 인증받을 때 제출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해 인증절차와 제출서류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또 인증신청자나 인증물품 생산지와 아무 연고가 없는 세관에 인증 신청 또는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생산자 및 생산공장 주소지 관할세관에 한해 이를 변경·승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Read More](#)

2. 발효 5년 맞는 한·터키 FTA ... 양국 교역 17.2% 증가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이 '13. 5. 1. 발효 5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가 '17. 12. 5. (화)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했다.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9번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효한지 약 4년이 경과한 초기단계에 있지만,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Read More](#)

3. 한·베 FTA는 '효과 만점', 한·중 FTA는 '글썸'

2015년 12월 20일 발효한 한·베트남 FTA와 한·중 FTA가 발효 3년 차를 맞았다. 베트남과의 교역은 FTA 발효 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국과의 교역은 사드 등의 여파로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12월 20일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차 주요 성과'와 한·중 FTA 발효 3년 차 주요 성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베트남과의 교역은 올해 5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했다. 對中수출은 1,2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